

논문 9

사회문화적 자원으로써 동아리활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김 현 주*

요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인문계 고등학생 79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변수 이외에 사회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개인적 변수, 가족배경변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자원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가족 배경변수 아버지의 학력, 사교육비가 중요하며, 부모의 관심도가 이들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가족외 환경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자원 변수로 간주된 동아리활동이 오히려 학업성취도에는 부정적임을 발견하였다. 신호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 방법에 의해 개인변수, 가족변수, 사회문화적 변수의 다중상호작용 방식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사교육비와 부모의 관심도는 개인변수나 가족변수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이 발견되었다.

핵심단어: 가족배경변수, 사회문화적 자원, 동아리 활동, 학업성적

1. 서론

한국사회에서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 관심은 개인의 학업성취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즉 기회구조의 평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배경적 변수, 즉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적 자원의 영향력은 약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화되고(방하남, 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사회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가족배경 변수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박창남, 도종수, 2005)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매우 광범위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2002; 2003), 학교와 교사와의 관계 요인(이미나, 1981), 친구와의 관계(윤미선, 이영옥, 2005)와 방과후 활동(김미혜, 옥경희, 천의영, 2001)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적 자원의 영향력이 학교나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자원을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다(윤미선, 이영옥, 2005; 문은정, 심희옥, 200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은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과 학업적 열망을 고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격려할 수 있다(장상수, 손병선, 2005; 박영신, 김의철, 2003;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학교나 교사와의 관계에도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 활동에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며(Coleman, 1988; Fursteinberg & Hughes, 1995), 결과적으로 교사와의 관계 밀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들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적 자원이 학교생활과 교사의 기대수준에 적절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들도 있다(Bourdieu, 1986; Bowles & Gintis, 1976).

가족의 배경이 물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계층재생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미정, 1998; 이정환, 2002; 장상수, 2004)와 이와는 반대로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문화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아닌 경로를 통해 제공된 사회문화적 자원에 의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방하남, 김기현, 2002; 조돈문, 2005; 이정선, 2001; 장미혜, 2002)도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투자 사업이나,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정책은 가족이 자녀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적절히 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대체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가족이 제공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자원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를 통한 세대간 계층재생산을 막고 능력에 의한 교육적 기회의 균등을 달성하려는 의지로 파악된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이며, 방과후 시간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학업성취의 결과가 달라진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1). 부모의 수입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다(Huston & Wright, 1999; Posner & Vandell, 1999).

친구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

재한다. 대체적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최정미, 김미란, 2003; 구자경, 2004; 윤미선, 이영옥, 2005),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장선철, 2005; 이은혜, 1991; 신중호, 신태섭, 2006)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반면, 친구 관계가 비행이나 인터넷 중독(고선주, 이은희, 황진숙, 박숙희, 2004; 이숙, 남윤주, 2004)과 같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관련 맺는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부정적(윤미선, 이영옥, 2005)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는 연구들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배경의 인적, 물질, 사회문화적 자원의 영향과 가족 배경 이외의 환경이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자원의 영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가족 배경 변수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정도, 사교육비 지출을 고려한다. 가족 외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학교환경에 대한 항목들과 학업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의 유무, 동아리활동에 보내는 시간과 동아리활동의 여부, 동아리 활동의 유형을 학업관련 동아리와 비학업관련 동아리로 구분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고 한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사회맥락적 변수들 이외에 개인적 요인으로 자긍심이나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이성교제의 여부, 학생의 독립공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개인요인, 가정교육, 가정 외 학교요인과 친구, 동아리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질 자원이 가정의 내외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자원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에 의해서는 학업성취에 있어 가족배경 변수를 통한 계층재생산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밝힐 수는 있으나 관련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방식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생태학적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차원적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signal detect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가족의 배경변수가 가족 외적인 사회문화적 자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학업성취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고찰

개인의 학업 성취는 그 개인의 성취 지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특히 학교가 선발과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기존연구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즉 가족배경의 영향과 가족외의 사회적 맥락변수들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족배경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가족변수들간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연구하였다.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개인의 학업성취가 결정된다면 개인의 능력에 의한 학업성취와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이 가능해지며 사회계층이 세대간 전수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개인의 가족 배경 즉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적, 물적 자원과 성취동기와 학습모델제공, 효율적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이 상호작용하거나 개입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의 연구들은 가정외의 학교를 둘러싼 친구와 학교변수, 동아리활동의 영향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배경 변수에 의한 계층 재생산 효과를 완화시키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학습지원이나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왔다. 학교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방과 후 활동들이 기획되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들이 있다.

1)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사회문화적 자원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가정의 배경변수로는 부모의 직업지위, 교육, 가구소득과 자산 등이 지적되었다. 학업성취에 가족배경변수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크게 종속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한다. 학업성취를 다음 교육단계로의 진입이라고 보는 연구와 ‘좋은 성적’과 같이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 다음 단계의 학교로 진학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배경변수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장상수, 2006; 방하남, 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장상수, 2004; 김기현, 2004). 그러나 단순히 대학진학의 여부가 아니라 위계서열이 높은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좋은 성적과 같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변수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가족의 배경변수가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거나(박창남, 도종수, 2005; 장미혜, 2002; 방하남, 김기현, 2002), 일정하지 않은 부모의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발견하였다(김현주, 이병훈, 2005; 장상수, 손병선, 2005; 김기현, 2004; 윤경희, 2001; 이현주, 1999). 방하남, 김기현(2002)은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능 서열분포상의 상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장미혜(2002)도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많으면 자녀들의 수능성적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박창남, 도종수(2005)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김기현(2004)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학력성취에 영향이 없으나 아버지의 직업은 여전히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상수, 손병선(2005)은 부모의 직업적 지위나 가족의 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현주(1999)나 윤경희(2001)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김현주, 이병훈(2005)는 여학생에게는 어머니의 학력과 좋은 성적이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남학생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부모의 직업지위가 영향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가족 배경변수의 영향에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자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방하남, 김기현(2002)는 경제적 자원보다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지위와 같은 문화적 자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김기현(2004)는 경제적 자원의 영향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창남,

도종수(2005)는 아버지의 교육수준효과가 크고, 소득은 직접효과보다 사교육비를 통한 간접효과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종수(2005)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교육비에의 투자는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부모의 교육과 직업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투자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상위 위계의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의 투자도 부모의 배경변수가 전환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과 소득이 사교육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영애, 김정미, 2002; 김현주, 이병훈,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비나 자녀의 공부방과 같은 물질적 자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외에도 가족배경변수가 자녀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윤미선, 이영옥, 2005; 박영신, 김의철, 2002; 2003; 이세용, 1997). 사회적 자원의 제공자로서 제 1순위는 부모이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는 학업성취와 연관성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2). 부모자녀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많으면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박영신, 김의철, 2003).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학업성적이 높았다(윤미선, 이영옥, 2005). 아버지는 공부나 성적에 대해 가장 많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용, 1997).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거나 학습에 우호적인 분위기, 즉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사회자본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이정선, 1996).

콜맨(Coleman, 1988)은 부모의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의 유무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사회자본은 부족하고 인적자본이 있는 부모의 자녀보다, 인적자본은 부족하지만 사회자본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학업성취가 우수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정선(2005)은 콜맨(1988, 110)의 부모의 인적자본이 사회자본에 의해 보충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적 성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들어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업격차를 설명하고 있다. 부모자녀간에 대화와 상호이해,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나 개입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학습 동기원으로 내재화(박영신, 김의철, 2003;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시켜 학업성취가 향상됨을 발견하였다(Lee, 1995; 이정선, 2001 재인용). 세대간 밀접성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사회자본을 강화해 준다(이정선, 2001). 자녀에게 부모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면 부모의 인적 자본은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밀접성은 사회적 자본이 되며, 부모의 인적 자본이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집중 하느냐와 같은 조건에 달려있다. 티치만 등은 (Teachman et al., 1997)은 일반적 사회자본¹⁾과 구체적 사회자본이 자녀의 중퇴율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종교학교에 재학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중퇴율이 낮

1) 일반적 사회자본에는 가족구조, 종교학교 재학여부, 전학 회수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 사회자본에는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 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의 강도, 부모와 학교간 상호작용의 강도 등을 포함한다.

고, 부모자녀가 유대가 강할수록 자녀의 중퇴율이 낮으나, 잦은 전학은 중퇴율을 높인다. 이들은 부모의 인적, 물질 자원이 많으면 자녀의 중퇴율을 낮출 수 있지만 구체적 사회자본에 의해 보완되지 못하면 부모의 물질, 인적 자원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자본이 부모의 인적, 물질 자원을 자녀에게 전수하는데 매개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인적, 물질 자본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사회자본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자녀의 학업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2) 가정외 환경의 사회문화적 자원: 학교환경과 친구관계, 동아리 활동

사회문화적 자원은 가정환경 밖에서도 존재한다. 학생들이 지각한 학교풍토에 따라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어수경, 1991). 콜맨(1966)은 학교의 영향력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무스(Moos, 1979)는 학교환경을 물리적 환경, 조직환경, 학생집단의 특성, 사회심리적 풍토로 구분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학교환경이 사회문화적 자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연결망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환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달되는 중요한 환경이 된다. 콜맨(1988)은 사회적 자본을 기능중심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는데 특정 학교가 처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자본의 차이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간의 관계구조 속에 존재하며 특정행위를 촉진하는 연결망이다(p. s98). 콜맨의 사회적 자본을 교육상황에 적용시키면 부모는 자녀의 성공기회를 높이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제를 즉 사회적 자본을 사용한다. 사회적 자본에는 아동의 성장에 유용한 성인, 부모나 다른 부모, 교사를 포함하는 성인과 아동과의 관계, 사회적 연결망, 규범 등을 포함한다. 콜만(1988)은 학교내 사회자본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간의 사회적 연결이 강해야 기능을 하며, 규범적 구조의 측면에서 상호우호적인 조직과 일관된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기능적 사회를 형성한다고 본다. 브라츠와 푸트남(Braatz & Putnam, 1996)은 학부모의 사회자본, 즉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가정, 지역사회 참여, 학교 내의 사회자본이 학업성공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미나(1981)는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된 교과내용의 성취도가 그렇지 못한 교과 성취도보다 높다는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내용과 학생들의 문화적 경험의 일치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친구관계도 가정 외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자원이다. 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이며(Brown & Theobald, 1998), 친구와 만나서 같이 노는 즐거움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문은정, 심희옥, 2001). 청소년들의 또래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미국의 경우(Brown & Theobald, 1998),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공부하는 졸업할 정도로만 하면 된다는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감추려 한다. 인종별로도 학업성취에 대한 또래의 기대치가 다르다. 흑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래로부터 '백인처럼 군다'고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지만 동양인

들은 또래친구들이 동양인은 공부를 잘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자신들을 대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감추려한다.

친구관계가 사회적 적응능력 등과 같은 것으로 표현(이숙, 남윤주, 2004; 최용주, 이재연, 1994)되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구자경, 2004; 최진승, 박금옥, 박경옥, 1997). 친구나 교사,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와 관련되기도 한다(윤미선, 이영옥, 2005; 이은해, 1991). 친한 친구가 존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최정미, 김미란, 2003), 이는 다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박영신, 김의철, 2003).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적 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자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최소한도의 자기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러나 방과후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이탈, 적응문제나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Huston & Wright, 1999;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Posner & Vandell, 1999, 1994)이 증가되면서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권일남, 2000; 서영숙, 박영애, 허정경, 2000). 이들 방과후 활동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수업을 하지 않고 혼자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TV를 더 많이 보고(Posner & Vandell, 1994), 학교 과제를 하는데 시간을 덜 보낸다(한명희, 1992). 또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Posner & Vandell, 1994), 이탈적 행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Galambos & Maggs, 1991). 이러한 행동들은 학업성적을 낮춘다(Posner & Vandell, 1994). 방과후 활동 중에서 학업성적과 관련되는 활동들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학업성적이 높았고(Huston & Wright, 1999;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Posner & Vandell, 1994), 밖에서 놀며 시간을 보내거나 TV 시청을 오래하면 학업성적이 낮았다(Huston & Wright, 1999; Posner & Vandell, 1994). 어떤 방과후 활동을 하느냐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수입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Huston & Wright, 1999; Posner & Vandell, 1994)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통제된 이후의 방과후 활동유형의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초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1) 학업과 관련된 방과후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방과후 활동은 크게 학원수강과 같은 학습조력의 방식과 사교육시장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과 같은 것으로 나뉘어 진다. 학원수강이나 과외 등의 방과후 활동의 학업성취에의 영향은 사교육비 투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사교육 시장과는 별개인 학업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동아리활동은 제 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과 외 활동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특별활동이 부각되

고 있다. 공업고등학교에서 학술동아리의 성격을 띠는 전공동아리 활동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조건을 분석한 권현진과 류창열(2002)은 성취도가 높은 동아리는 동아리 운영의 주체가 학생들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여부나 참여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3) 개인변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어왔다(신종호, 신태섭, 2006; 김기예, 이소은, 2005; 김종한, 2001; 이경아, 정현희, 1999). 학생들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으며(이경아, 정현희, 1999), 높은 자기효능감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신종호, 신태섭, 2006), 학교적응력도 높아지게 한다(김기예, 이소은, 2005). 김종한(2001)은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과선호도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쳐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3. 연구방법

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중고생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고용실태를 최대 15년간 추적 조사를 계획하는 사업의 결과인 1차와 2차 패널데이터(KEEP)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 2단계에는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3년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1295개 학교가 표본틀로 구성되었다. 학교를 추출하는 1차 단계에서는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층화하고, 지역별로 층화된 학교들을 전국 학생수 대비 해당지역 학생수 비율을 사용해 추출할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에서 4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각 학급에서는 계통추출법에 의해 각 5명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차 패널데이터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들의 가구정보와 1차 자료의 학생과 부모에 대한 정보도 같이 사용하였다. 2차 한국교육고용패널 일반 고등학교 학생자료 사례 1,292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부모의 속성변인에 대한 정보와 유효한 학업성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만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결과 총 790개(남학생 397개, 여학생 393개)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모형

학생 개인의 속성변수와 태도와 관련된 변수, 부모의 인적자원과 물질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부모나 학교, 친구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개인에게 전달되는 사회문화적 자원을 선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영향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성별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학생의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자긍심을 측정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는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은 3.87이며 학교생활만족도는 3.44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자긍심은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6점에서 30점 사이의 분포를 보일 수 있는데 표본의 평균값은 20.03이며 표준편차는 3.32였으며 신뢰도는 알파값 .767이었다. 6개의 문항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학생의 이성교제 여부를 측정하여 이성친구가 없는 것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인적, 물질 자원과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사용하였다. 부모의 인적자원으로는 아버지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범주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졸업여부를 기준으로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평균교육수준은 5.35로 고등학교 졸업과 2년제 이상 졸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범주는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미취업/무직으로 구분하였으면 생산직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사무, 서비스, 판매직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물질 자원으로는 가구의 월 소득을 선정하였다. 지난 1년간 가구 월소득 평균값을 자연대수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사교육비도 측정하였다. 사교육에 지출한 한달 평균 사교육비를 자연대수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학생의 공부방 유무를 측정하여, 공부방이 없는 것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족이 자녀인 학생에게 갖는 관심정도나 학교의 환경, 공부를 같이하는 친구의 유무, 동아리 활동시간과 동아리 활동유형을 학생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자원으로 보고 모형에 포함시켰다. 학생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는 6개 영역에 의해 측정되었다. 6개 영역은 ‘학업 및 성적에 관한 사항’, ‘친구에 관한 사항’, ‘친한 친구의 부모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생활 습관에 관한 사항’, ‘현재의 개인적 고민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전혀 모른다’에서부터 ‘매우 잘 알고 있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6개 항목의 신뢰도 검사 결과 신뢰도 계수는 .738이었다. 표본의 평균은 21.82였다. 학교환경에 대한 항목들은 총 6개의 항목으로 6개 항목은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다,’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급식의 질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가기가 편하다,’ ‘규율이나 생활지도가 엄격하다,’ ‘학교주변에 유흥시설이 많다(R)’다’로 구성된다. 표본의 평균은 20.25이었다. 동아리활동시간은 일주일 평균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표본의 평균은 1.22시간이었다. 동아리 활동유형은 학업관련 활동과 비학업관련 활동,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누어 학업관련 동아리 활동을 기준변수로 선정하였다. 친구관계는 학업관련활동을 같이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두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학업관련활동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변인들의 기초통계는 표 1과 같다.

3) 연구모형

종속변수로 사용된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석차 백분위를 사용하였다. 학급석차를 학급인원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학급석차 백분위²⁾를 계산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간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보기위해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양호하였다.

모형은 모두 세 개의 독립변수 군으로 나누어 회귀 분석하였다. 개인의 속성변수와 태도변수를 첫 번째의 군으로 하고, 부모의 배경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두 번째의 군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전환되는 사회문화적 자원 변수들을 독립변수 군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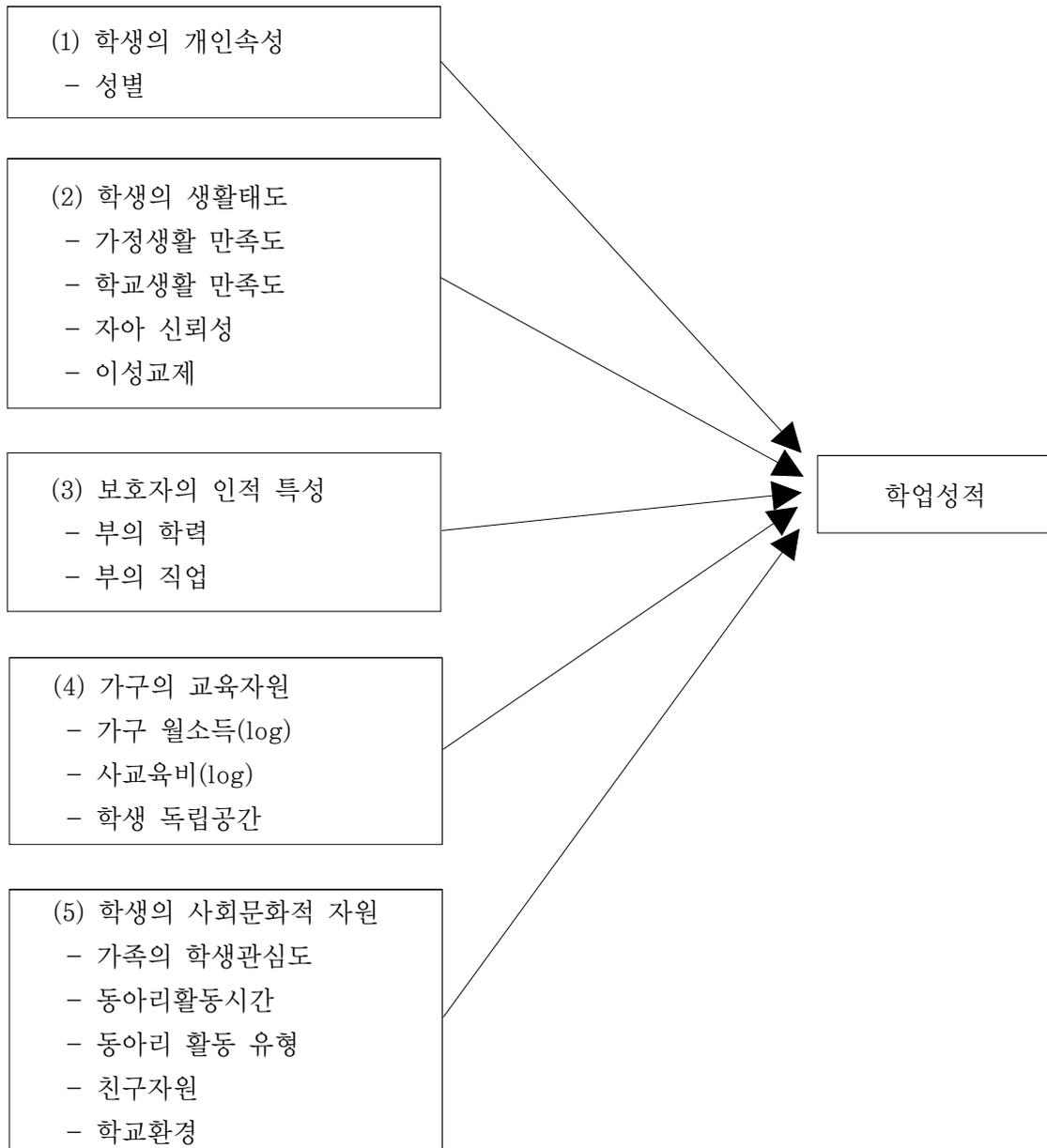
회귀분석 모형 이외에 신호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에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차원 상호작용 분석기법인 신호감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이 예상될 때, 유효하다(Kraemer, 1988)고 보는데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 사회활동들의 맥락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³⁾. 이 분석방법은 독립변수들은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값보다 높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를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며, 사례수가 너무 적거나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분석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2) 전교석차를 전교인원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계산한 전교석차 백분위와 학급석차 백분위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편성이 우열반 체제로 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전교석차 백분위를 학생의 석차 백분위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석차를 모르는 학생이 비율이 높았고, 전교석차보다는 학급석차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전교석차와 학급석차 중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 석차 백분위를 학생의 학업성취도로 보았다.

3)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 계수가 모두 1의 수준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론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학생을 둘러싼 모두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맥락들간의 연속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신호감지분석방법을 택하여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1〉 분석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고
[개인 속성 변수]				
- 성별(더미)	790	.50	.50	여자=0, 남자=1
[학생 생활태도 변수]				
- 가정생활 만족도	790	3.87	.84	5점척도
- 학교생활 만족도	789	3.44	.90	5점척도
- 자긍심	790	20.03	3.32	학생 자긍심 6개문항 5점척도
- 이성교제(더미)	790	0.88	.32	이성친구 없음=0, 있음=1
[부모 속성 변수]				
- 부의 학력년수	780	5.35	1.41	부친 교육수준
- 부의 직업범주 더미				생산직, 노무, 농어업을 기준범주로 설정
고위관리직	790	.19	.39	
전문직	790	.43	.20	
사무/서비스/판매직	790	.33	.47	
미취업/무직	790	.09	.29	
[가구의 교육자원]				
- 가구 월소득(로그)	765	4.99	1.77	지난 1년간 가구월소득 자연대수
- 사교육비(로그)	790	7.60	6.09	사교육비 한달평균지출 자연대수
- 학생 공부방(더미)	763	1.13	.33	공부방 없음=0, 있음=1
[학생의 사회문화적 자원]				
- 가족의 학생 관심 정도	780	21.82	3.28	관련 6개 문항 5점 척도
- 동아리활동시간	790	1.22	1.98	동아리 활동시간
- 동아리 활동 유형				학업동아리활동을 기준변수로 설정
동아리 없음	790	.39	.49	
비학업 동아리 활동	790	.47	.50	
- 친구 자원	790	.06	.24	학업관련활동공유X=0, 공유=1
- 학교환경	790	20.25	3.06	관련 6개 문항 5점 척도
[종속 변수]				
- 성적 석차	790	35.63	23.60	성적 백분위(%)



[그림 1] 학업성취의 분석모형

4. 연구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있어 가족 배경을 통한 사회계층의 재생산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배경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가정 외적 환경에서 사회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면 이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가족 배경 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

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자원도 가족환경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족외의 환경으로서 지역사회활동이나 학교활동으로서 사회문화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의 영향이 오히려 학업성취도에는 부정적임을 발견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10%미만으로, 학업성취의 많은 부분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제외한 변수에 의해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발견을 세 개의 독립변수 군에 의해 단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학업성취를 통한 사회계층의 재생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독립변수 군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변량의 설명력을 분석하면 학생 개인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가장 크고, 가족배경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그 다음으로 크다. 사회문화적 자원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가족배경 변수 이외의 사회문화적 변수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은 거의 없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표2, 표3, 표4)는 신호감지분석결과[그림 2]와도 일치한다. 회귀분석결과는 개인변수들 중에서는 자긍심과 이성교제여부가 유효한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보이고, 가족 배경변수들 중에서는 사교육비가 유효한 차이를 나타낸다. 반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유효여부를 보는 신호감지분석에 의해서는 사회문화적 자원관련 변수들은 부모의 학생에 대한 관심도 이외에는 전혀 유효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취도의 가장 전형을 보이는 집단은 자긍심이 높고 사교육비 투자가 많은 집단이다. 이 집단과는 근소한 차이지만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집단⁴⁾은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며, 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다. 이 집단의 평균 석차백분위는 29.75%⁵⁾이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집단은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의 평균석차 백분위는 51.37%이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부모의 관심도만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과 가장 낮은 평균의 석차백분위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발견이다. 사교육비의 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중간이상으로 쓰고 있는 집단이 아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교육비의 많고 적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의 관심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그림 3],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집단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사교육비를 중간 이하로 투자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평균값은 45.04%이다. 반면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집단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평균 석차백분위가 30.81%이다. 여학생의 경우[그림 4],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집단은 이성교제를 하며 아버지가 고위관리자 직종이 아닌 집단이다. 이 집단의 평균 석차 백분위는 46.70%이다. 반면에 가장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은 평균 석차백분위가 26.02%인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며 사교육비를 중간이상으로 쓰며 부모의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다.

4) 수치상으로는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아 25.60%이나 해당하는 사례수가 16개밖에 되지 않아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5) 100명 중에서 1등이라고 하면 백분위는 1%이고, 100등이라고 하면 100%가 된다.

1) 학생 개인 변수의 영향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수로는 학교생활만족도와 자긍심이 있다<표 2>. 남학생<표 3>들에게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표 4>들에게는 자긍심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남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석차 백분위가 낮아서 학업성취도가 높고, 여학생들은 자긍심이 높으면 학업석차 백분위가 낮다. 여학생들에게는 이성교제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이성친구가 있으면 학업석차 백분위가 높아서 학업성취도가 낮다. 이성친구의 영향력은 가족배경변수나 사회문화자원 변수가 추가되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그 영향력이 약화된다.

〈표 2〉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전체 학생

	모형 (1) 개인변수	모형 (2) 가족배경변수	모형 (3) 사회문화자원변수
성별	.031	.029	.022
학교생활 만족도	-.134***	-.128***	-.127***
가정생활 만족도	-.045	-.022	-.008
학생 자긍심	-.093***	-.091**	-.083**
이성친구 유무	.076**	.061*	.060*
부친학력		-.035	-.029
부직업-고위관리직		-.030	-.019
부직업-전문직		-.049	-.044
부직업-사무/서비스/판매직		-.058	-.062
부직업-미취업/무직		.005	.003
가구 소득(log)		.008	.003
사교육비(log)		-.163***	-.153***
학생의 방 유무		.019	.015
학생에 대한 가족관심			-.087**
동아리활동시간			.073*
동아리활동-동아리 없음			-.027
동아리활동-비학업 동아리			-.056
친구자원			-.024
학교환경			.010
F (sig.)	6.941***	4.998***	4.156***
Adj. R ²	.036	.065	.074
사례수	789	753	753

* p<.1, ** p<.05, *** p<.01

회귀분석의 결과는 자긍심, 부모의 관심도와 이성교제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관심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이성교제를 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이와는 달리 신호감지분석에 의하면 낮은 자긍심과 이성교제, 부모의 관심도가 결합

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일 것을 예상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 이 세변수의 영향력은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나 신호감지분석에 의한 다중상호작용에서 자긍심의 효과는 사라진다. 오히려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과 관련성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호감지분석에서 보듯이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낮은 자긍심을 보상할 수 있는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 후속연구에 의해 탐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신종호, 신태섭, 2006; 김기에, 이소은, 2005; 김종한, 2001; 이경아, 정현희, 1999)이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자긍심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 자긍심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자긍심과 친구관계의 특성과의 연관성에서 설명할 수 있다. 좋은 친구관계는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Harter, 1982),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Bukowski & Hiza, 1989). 성별에 따라 친구관계의 특성이 다르다는 기존연구들의 결과(이숙, 남윤주, 2004; 최정미, 김미란, 2003)를 보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학생들에게(윤미선, 이영옥, 2005; 이숙, 남윤주, 2004; 최정미, 김미란, 2003) 친구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자긍심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후속연구를 통해 지지되어야 하는 해석이다.

학교생활만족도의 영향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친구들과의 관계이다(문은정, 심희옥, 2001; Brown & Theobald, 1998). 성별에 따라 친구 수에 차이가 있는데(이숙, 남윤주, 2004; 최정미, 김미란, 2003),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친구와 어울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단짝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친구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이숙, 남윤주, 2004) 학교생활만족도가 친구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학교생활만족도와 친구관계만족도가 동시에 고려되는 분석모형에 의해 학교생활만족도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에 대해 재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

가족배경 변수 중에서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사교육비이다. 사교육비에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석차백분위가 낮아져서 학업성취도는 높다. 남학생의 경우(표 3)에는 아버지의 학력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향성은 신호감지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교육비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에 유효한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고위관리직(여학생의 경우, 그림 4)과 전문직(전체 학생, 그림 2)의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높다. 남학생의 경우(그림 3)에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으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호감지분석(그림 2)을 하면 평균적으로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직업군이 전문적인 경우이다. 평균값은 25.60%이지만 사례수가 16개로 매우 적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차적으로 개인적 변수를 고려한 이후에 추가되는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 중에서는 사교육비의 많고 적음이 학업성취도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다. 신호감지분석에 의하면[그림 2]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지만 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의 학업성취도는 높다. 일반적으로 자긍심이 낮거나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낮아지지만 부모의 관심이 높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와 현저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면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회귀분석의 결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결과로서 신호감지분석이 다중상호작용의 과정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남학생의 경우[그림 3]에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석차백분위가 31.75%로 가장 낮아서 가정배경 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회귀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남학생들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집단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사교육비에 투자하지 않는 집단이다(45.04%).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그림 4] 이성교제를 하며 사교육비에 적게 투자하는 집단이 가장 학업성취도가 낮고(50.82%),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며 사교육비에 많이 투자하고, 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가장 학업성취도가 높다(26.02%).

〈표 3〉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남학생

	모형 (1) 개인변수	모형 (2) 가족배경변수	모형 (3) 사회문화자원변수
학교생활 만족도	-.223***	-.227***	-.224***
가정생활 만족도	.006	.038	.037
학생 자긍심	-.045	-.049	-.039
이성친구 유무	.055	.030	.028
부친학력		-.102*	-.096*
부직업-고위관리직		-.032	-.026
부직업-전문직		-.081	-.083
부직업-사무/서비스/판매직		-.034	-.041
부직업-미취업/무직		-.017	-.019
가구 소득(log)		-.006	-.010
사교육비(log)		-.152***	-.135***
학생의 방 유무		-.055	-.054
학생에 대한 가족관심			-.063
동아리활동시간			.020
동아리활동-동아리 없음			-.087
동아리활동-비학업 동아리			-.052
친구자원			-.070
학교환경			-.015
F (sig.)	5.899***	3.758***	2.916***
Adj. R ²	.047	.081	.073
사례수	397	375	378

* p<.1, ** p<.05, *** p<.01

〈표 4〉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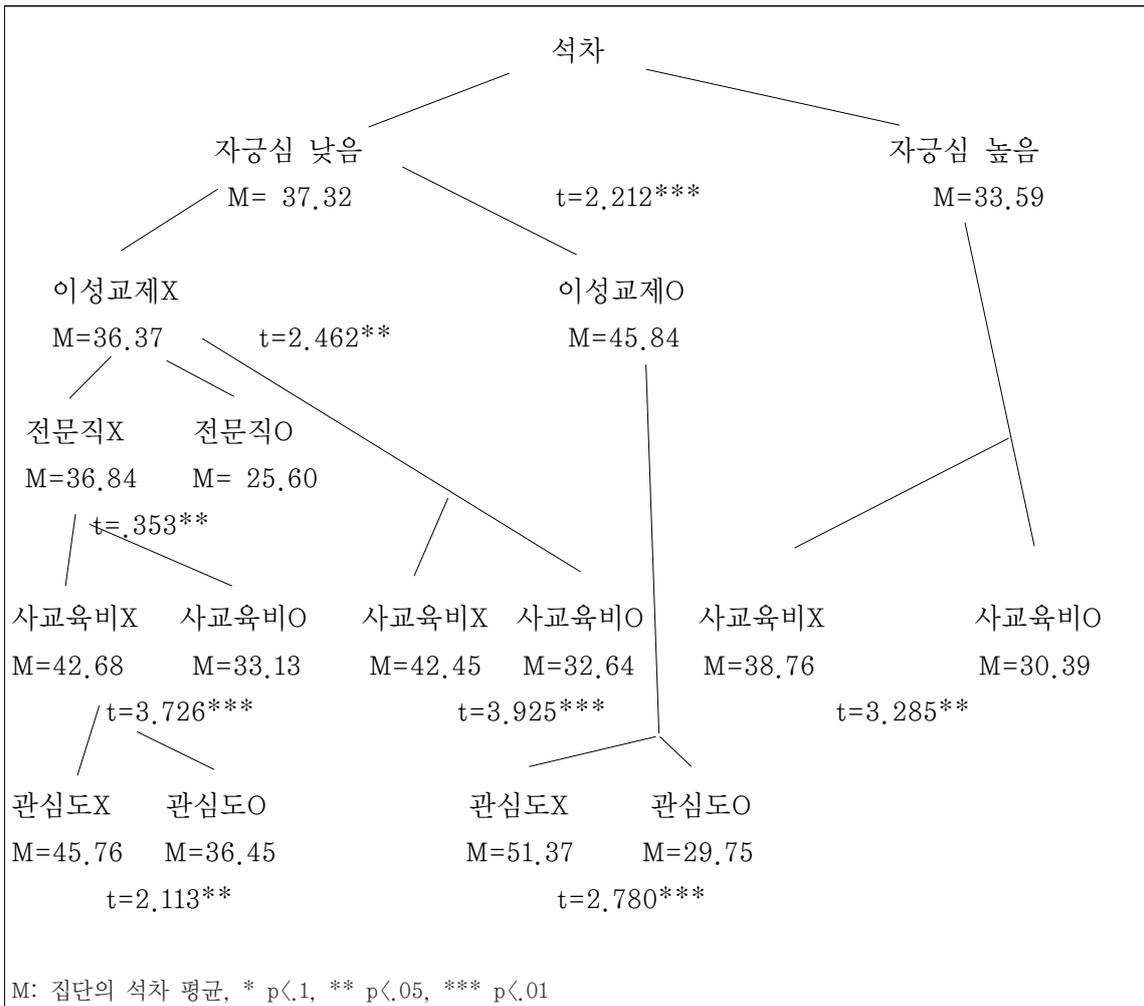
	모형 (1) 개인변수	모형 (2) 가족배경변수	모형 (3) 사회문화자원변수
학교생활 만족도	-.041	-.045	-.048
가정생활 만족도	-.084	-.076	-.047
학생 자긍심	-.149***	-.142***	-.134**
이성친구 유무	.098**	.091*	.091*
부친학력		.034	.048
부직업-고위관리직		-.045	-.032
부직업-전문직		-.011	-.008
부직업-사무/서비스/판매직		-.083	-.087
부직업-미취업/무직		.018	.021
가구 소득(log)		.028	.033
사교육비(log)		-.169***	-.164***
학생의 방 유무		.065	.060
학생에 대한 가족관심			-.105**
동아리활동시간			.113*
동아리활동-동아리 없음			.040
동아리활동-비학업 동아리			-.053
친구자원			.032
학교환경			-.011
F (sig.)	4.943***	3.103***	2.661***
Adj. R ²	.039	.063	.073
사례수	392	378	378

* p<.1,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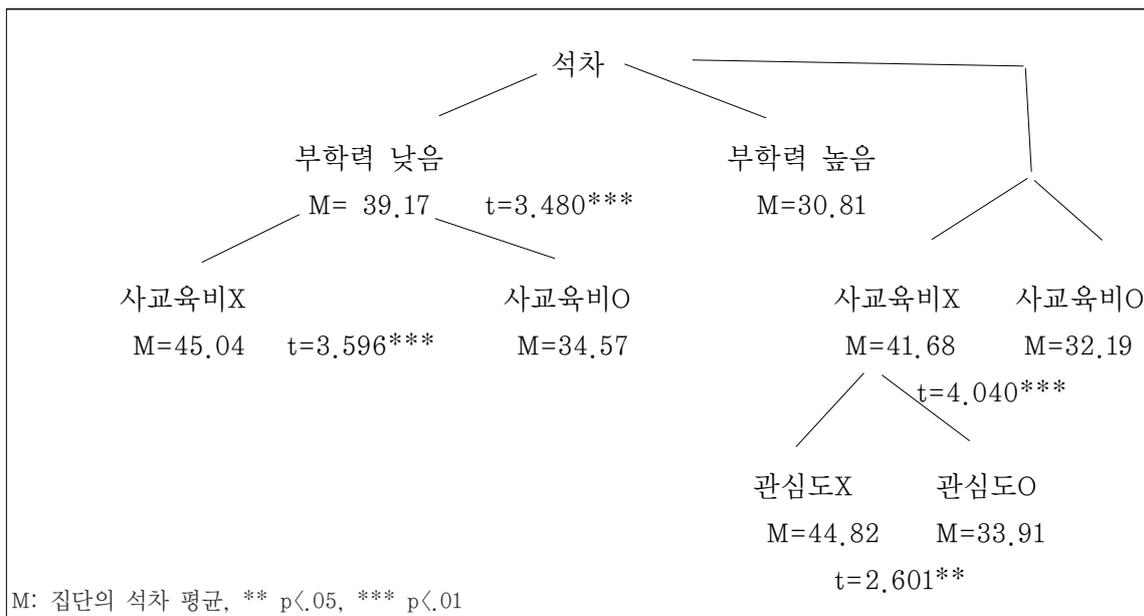
가정 배경 변수 중에서는 사교육비의 과다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자긍심이 낮거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아도, 또는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지 않아도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실상이 한국의 부모들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3) 사회문화적 자원 변수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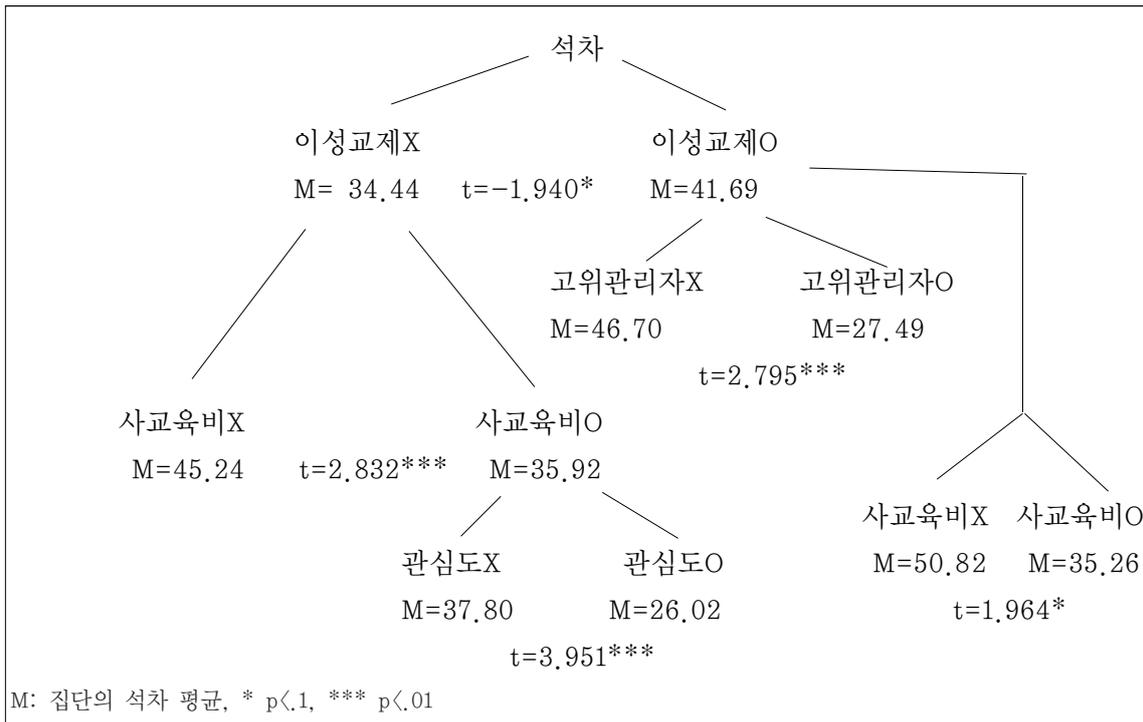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제외하고는 가족 외 환경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자원의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 전체학생(표 2)과 여학생(표 4)에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지만 남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표 3). 가족 외의 사회문화적 자원으로서 동아리 활동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의 인적, 물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본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표 4)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아리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떨어진다. 활동시간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유형의 동아리 활동을 하느냐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2] 신호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 전체학생



[그림 3] 신호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 남학생



[그림 4] 신호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 여학생

신호감지분석방법으로 사회문화적 자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개인적 환경과 가족의 인적 물질적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원에 해당하는 관심도가 높으면 학업성취도는 상당히 높다. 자긍심이 낮은 집단의 학업성취도(37.32%)보다 높고(36.45%와 29.75%),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45.84%)보다 높다. 그러나 남학생이 경우[그림 3]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인해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 인적 자원인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사회적 자본인 부모의 높은 관심도를 동시에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콜맨(1988)이 주장하였듯이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이 동시에 결합할 경우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인적자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도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기 힘든 환경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그림 4]는 부모의 관심도가 학업성취도와 관련을 맺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의 정형을 따르고 있다. 즉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사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다(26.02%).

5.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변수 이외에 사회문화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가족 배경 변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성적과 같은 학업성취도에는 여전히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들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실하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사교육비와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강함을 발견하였다(박창남, 도중수, 2005).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부모의 인적, 물적 자원이 사회문화적 자원으로 전화되는 과정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환경과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동아리활동의 사회문화적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전히 가족 배경변수가 중요하며, 이들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사회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모의 관심도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사회문화적 자본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중간단계의 결합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합구조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생활만족도와 자긍심이 개인적 요소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남학생에게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여학생에게는 자긍심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 변수 중 이성교제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학생에게 유의미하다. 부모의 인적, 물적 자원은 사교육비로 전환될 경우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학력수준도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사회문화적 자본 중 하나로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들에게는 부모의 관심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족외 환경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자본 중 하나인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는 여학생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낮다.

신호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은 가족배경변수와 사회문화적 자본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긍심이 높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면 학업성취도가 높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학력수준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은 것도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사교육비의 투자와 부모의 관심도가 여러 가지 다른 가족 배경적 변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에서도 부모의 관심도가 높으면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회귀분석결과로 알 수 없는 다중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학업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그 자체보다는

사회자본이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더 유효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콜맨(1988)이 부모의 인적, 물질 자본이 가족관계에서 구체화되는 사회 자본에 의해 보충되지 못하면 부모의 자원이 자녀의 교육적 성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인적자본보다는 사회자본이 더 중요함을 밝혔듯이, 이번 연구결과는 부모의 인적, 물질 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사회적 자본의 존재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와 관련된 가정 외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자원의 존재는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가져오는데 충분하지 않음도 발견하였다. 어떤 사회적 변수들이 학교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사회문화적 자본과 결합되어야만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가족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과제이다. 현재 가족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 중 하나로 분석에 사용된 동아리활동시간은 여학생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오히려 학업성취도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기존에 알려진 가족배경변수의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는 다중상호작용방식의 조건들의 결합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자료의 측정방식과 무응답에 의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을 평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성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매우 많은 수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학급석차나 전체석차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과 달리 과목별 상대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종합한 한 개의 지표인 학급석차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자가 많고, 응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교환경에 대한 설문문항이 1차년도의 설문문항과 달리 구성되어 있고, 2차년도에 구성된 설문문항이 1차년도에 비해 학교의 사회적 자본을 평가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적합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중상호작용의 유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긍심이 낮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부모의 관심도가 높으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우나, 성별에 따라 자긍심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의 특성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 2004.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 구자경. 2004.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정신건강간의 관계-학교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2), 217-239.
- 권일남. 2000. 초·중·고의 방과후 활동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97-112.
- 김기예, 이소은. 2005.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학교 적응. 한국생활과학지, 14(1), 35-46.
- 김기현. 2004. "가족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9-142.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1. 초기 청소년기의 방과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한 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종한. 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김현주, 이병훈.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179-198.
- 문은정, 심희옥. 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_____. 2003.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창남, 도종수.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방하남 ·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집, 4호, 193-222.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집 4호, 31-65.
- 서영순, 박영애, 허정경. 2000.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비교. 아동학회지, 21(1), 141-161.
- 신중호, 신태섭. 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 요인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 5-23.
- 어수경. 1991. 학생이 지각한 학습풍토와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
- 윤경희. 2001. 학업성취결정모형의 중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11(1), 137-162.
- 윤미선, 이영옥. 2005.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 컴퓨터 게임 중독, 학업성적간 관계모

- 형 비교. 교육방법연구, 17(2), 183-197.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미나. 1981. 학업성취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재고-. 교육학연구, 19(2), 68-81.
- 이미정. 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집(봄호), 63-97.
- 이세용. 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가을), 595-623.
- 이숙, 남윤주. 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42(3), 1-16.
- 이은혜. 1991. 아동의 인지능률성, 동기지향성, 사회적 지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유아교육, 11, 71-89.
- 이정선. 200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콜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4(2), 147-181.
- 이정환. 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집 6호, 195-213.
- 이현주. 1999. 여중생의 진로태도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모녀의 심리, 배경요인과 관계요인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7(3), 279-321.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집 4호, 223-251.
- 장상수.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1), 127-156.
- _____.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집 1호, 51-75.
- 장상수, 손병선.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198-230.
- 장선철. 2005. 대학생의 개인변인,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117-134.
- 조돈문. 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집 2호, 1-33.
- 최용주, 이재연. 1994.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1), 109-127.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진승, 박금옥, 박경옥. 1997.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 교육학연구, 10(2), 95-126.
- 한명희. 1992.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Brown, B.B. and Theobald, W. 1998. Learning contexts beyond the classro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community organization, and peer groups. in K. Borman and B. Schneider (eds.). *The Adolescent Years: Social Influences and Educational Challenges*. Chicago, 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 Press. 241-258.
- Bowles, Samuel and Gintis, Herbert, 1976,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이규환 역(1986), 사계절.
- Bukowski, W.M. and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J. Berndt and G.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5-45.
- Coleman, J.S et a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S95-S112.
- Fursteinberg, Jr., F. F. and Hughes, M.E.,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5-92.
- Galambos, N.L. and Maggs, J. 1991. Children in self-care: figures, facts, and fiction, in J. V. Lerner and N.L. Galambos(eds.), *Employ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New Yor: Garland, 131-157.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uston, A.C. and Wright, J.C.. 1999. How young children spend their time: television and other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912-925.
- Kraemer, H.C. 1988. Assessment of 2x2 associations: Generalization of signal detection methodology. *The American Statistician*, 42(1), 37-49.
- Moos, R.H. 1979. Evaluating educational environments. Washington: Jossey Bass Publisher.
- OECD multilingual summaries. 200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2005 edition.
- Pettit, G.S., Bates, J.E., Dodge, K.A., and Meece, D. W. 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Posner, J.K. and Vandell, D.L.. 1994. Low-income'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 _____ . 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9.

Abstract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a sociocultural resource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Hyunju Kim(Chung-Ang University, Dept. of Youth Studies)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ersonal, familial and sociocultural variable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The data used for the study was the first and second KEEP(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 The sample was consisted of 790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milial background variables, especially father's education and private tutors, were still very important factor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Among sociocultural capital factors, only parents' concern for the children positively interacted with familial background factors. Unexpectedly extracurricular activities, which were considered as sociocultur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context,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academic performance. Based on the signal detection analysis, private tutors and parental concerns for the children alleviated the negative effects of familial background.

key words: familial background, sociocultural resourc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ademic performance

토 론 문

『사회문화적 자원으로서 동아리활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이 경 상*

1. 김현주(중앙대학교) 교수님의 좋은 논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다.
2. 이 논문은, (1) 해가 갈수록 사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2) 몇몇 논문을 통해 사교육비의 지출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고, (3)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대한 국가사회정책적 관심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가족이외의 사회문화적 자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주제로 설정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학문적, 정책적으로도 의의가 매우 높은 훌륭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문화적 자원’ 즉,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 및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 함께 최근에 개인발전 및 사회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개념이다. 학자(부르디외, 푸트남, 콜만, 후쿠야마 등)마다 논의의 수준(거시 혹은 미시, 집단 혹은 개인) 및 개념정의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 자본 = 신뢰+규범+네트워크’로 정의된다. 보통 대개 분석적인 글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애착, 사회적 지지, 정보, 규범 등의 획득 및 교환’ 등으로 조작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자본 개념을 사교육에 적용시켜 보면, ‘사교육비’ 그 자체는 경제적 자본이지만 ‘사교육 참여유무’와 ‘사교육 시간’은 ‘가정의 경제적 자본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이다. 그리고 사교육과 관련된 경제적 자본의 불평등은 사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 학습관련 자발적 동아리의 확대 등 다른 사회적 자본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3. 전체적으로 틀이 잘 잡혀있는 우수한 논문이라 별로 지적할 것이 없는 논문이지만, 부족하나마,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분석대상 부분 : 필자는 논문에서 2차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고 직능원의 교육고용패널은 1차년도에 고3 학생부터 조사를 했으므로 현재 2차년도 데이터의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야 하나, 필자는 ‘학업성취도’의 종속변수로 ‘대학진학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학급석차’를 사용하고 있어 1차년도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2차년도의 대학진학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독자를 위해 좀 더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분석방법 부분 : (1) 이 글에서 필자는 ‘사회문화적 자원으로써의 동아리 활동’에 관한 경험적인 변수로 ‘동아리 활동시간’과 ‘동아리 활동유형(활동안함/비학업관련/학업관련)’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제시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로 ‘동아리 활동시간’과 ‘동아리 활동유무’ 혹은, case가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학업관련 동아리 활동시간’과 ‘학업관련 동아리 활동유무’로 추가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2) 그리고 현재 분석에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독립변수로 2차년도의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1차년도 독립변수도 포함시켜 종단적 데이터의 특성을 살려 1-2차년도 독립변수의 영향을 다양하게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현재 회귀분석결과표에는 독립변수의 차수를 잘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3) 또한 아버지의 학력변수를 ‘서열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중퇴는 중간점으로 산정)’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사소한 것이지만, <표 2>, <표 3>, <표 4>의 제목부분에 ‘회귀분석결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요인분석 결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3) 연구모형’ 앞부분에 기술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인 ‘2) 변수설명’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다시 한번 좋은 논문을 읽고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